



# 천천히 느리게 함께



‘빨리 빨리’는 한국인의 특징이고, ‘빠릿빠릿’은 일 잘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.  
 서행하면 운전 못하는 차량이라 여겨지고 네비게이션의 예상 도착시간이 줄어들면 쾌감을 느낍니다.  
 그런데 속도가 중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, 속도를 낼 수 없는 누군가는 불편과 원망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.  
 느려지겠다는 불편의 결심으로 누구도 뒤쳐지지 않고 **모두가 함께 걷는 우리,**  
**누구도 약자이지 않은 사회**를 꿈꿉니다.

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,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.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 
 그에게 말하였다. “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.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.” 마가복음 10:49

### 느끼다

- 멈춰서 내 호흡을 느끼기
- 손편지 쓰기
- 자연에서 산책하며 나무와 풀 알아가기

### 가다

- 가까운 거리는 걷기
-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 양보하기
- 유아차와 휠체어에 엘리베이터 양보하기

### 하다

- 휠체어 이동 방해요소 찾아보기
- 임산부석과 노약자석 비워두기
- 햇살을 느끼며 생태와 생명 묵상하기

